

내년 1월 입주 앞둔 남광주고가 10m 옆 아파트 방음시설 집단민원 제기

소음문제 뻔했는데... 사업 승인 어떻게 냈나

입주민 방음터널 시공 요구

하중지붕·미관 문제 등 논란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인근 남광주고가도로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동구가 남광주고가도로의 소음피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나 주택재개발조합측은 남광주고가도로의 노후로 인해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무등산 아이파크 일반분양 입주예정자 420여세대가 최근 ▲남광주고가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안전교차로 설치 ▲입주 전 공동주택품질 검수 등 민원을 제기했다. 무등산 아이파크는 모두 11개 동 1400여 세대 규모로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모임은 "11개 동 중 4개 동이 남광주고가도로와 불과 10~15m 거리 이내에 있어 고가도로를 오가는 차들로 인한 심각한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소음과 먼지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음터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구청이 바로 인접한 고가도로의 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 방음벽만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줘 발생한 문제"라며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동구청의 책임이 크다. 감사원 감

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동구는 지난 2012년 7월 단지 내에 12m 높이의 방음벽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학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남광주고가도로 소음 우려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사업시행인가 4년 뒤인 지난 2월에야 시행사인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남광주고가도로 소음저감 방안 검토보안' 및 '남광주고가도로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는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건인 방음벽을 설치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행 주택법의 소음기준은 5층 이하의 실외 기준 66데시벨(dB), 6층 이상은 실내 기준 45데시벨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시공사 측이 남광주고가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고가도로 위 방음벽 설치 방안 등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남광주고가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억원 규모의 노후시설 보강공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가도로 방음벽은 차들의 사고 위험도 높고 실질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시행사 측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남광주고가도로와 불과 10여m 떨어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꿀볼건 갑질

“경비원은 개다” 폭언·행패 일삼은 입주민 폐기물업체 대표 협박·갈취한 사이비기자

전남경찰 특별단속 38명 검거

#1. 광양의 모 아파트 경비원 A(72)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입주민 B(60)씨로부터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막말을 들었다. B씨는 막말로 끝내지 않고 경비실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B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0시20분께 또 다시 경비실을 찾아가 1시간가량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2. 지난 3월 사이비 기자 C(56)씨는 환경업체로부터 정찰을 받고 전남의 한 신생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처럼 꾸며 검찰에 고발하고, 취재를 핑계삼아 수차례 업체 대표를 괴롭혔다. C씨는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가벼운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내고 보도 무마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50여 일간 ‘갑(甲)질’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경비원은 개’라고 욕설을 한 주민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

다. 전남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일부터 100일간 정부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179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에 11건을 행정 통보했다.

광양경찰은 “경비원은 개”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쟁업체로부터 부정 정찰을 받고 영세업체들을 괴롭힌 사이비기자 C씨를 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환경업체들이 환경감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비기자를 고용해 신생 경쟁업체를 감시하고 경미한 잘못을 적발해 길들이기를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며 “사이비기자와 결탁한 환경업체의 횡포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울 오페산 터널 총격전... 경찰 1명 사망

범인 검거 중 사제총기 맞아

서울 시내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던 경찰관이 용의자가 쓴 사제총기에 맞아 숨졌다.

19일 오후 6시28분께 강북구 번동 415-79번지에서 “둔기로 맞았다”는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던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폭행 용의자 송모(45)씨와 쓴 사제총기에 맞고 쓰러졌다. 조사 도중 등 뒤에 총격을 당한 김 경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용의자 송씨는 곧바로 도주해 오페산 터널 쪽으로 도주했으며,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대치 도중 송씨와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검거 당시 사제총기를 여러 정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으며, 훼손된 전자발찌는 검거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앞서 송씨는 폭행 신고 장소에서 다른 민간인 1명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이 민간인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육군 소위 등 5명 집단 성폭행 조사

대학 학군단 시절 저지른 범행도 들통

육군 소위 2명과 함께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가담했던 민간인 3명을 경찰이 조사중이다.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지난해 11월 광주시 북구 한 모텔에서 육군 소위 2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사건을 육군 헌병대로부터 이첩받았다.

20대 A소위는 지난 7월 군에서 휴가를 나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중 노트북에 보관 중인 또 다른 20대 여성 성폭행 영상이 발견돼 추가 범행이 발각됐다.

군 헌병대는 동영상에 등장한 또 다른 소위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공범인 민간인 3명의 신원을 소위들의 조사를 통해 특

정하고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민간인 3명은 소위들과 친구 사이인 일반인 2명과 후배 ROTC 교육생 1명이다.

A소위 등 5명은 지난해 11월 20대 여성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밝힌 군 헌병대 수사결과에 따르면 술에 취한 여성을 소위 1명과 일반인 1명이 각각 성폭행하고, 나머지 3명은 성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헌병대가 보낸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민간인 3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화물연대 열흘만에 파업 전격 철회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인 19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 수석본부장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도 화물연대 요구안을 관철하는 데 역부족했다”면서 “파업투쟁은 오늘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날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이 수석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해산을 선언했고, 조합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났다.

파업이 전격 철회된 것은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물밑접촉을 통해 파업 철회와

관련된 조건을 상당한 부분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차 폐지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손해보고 팝니다”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7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